
	<h1>보 도 자 료</h1> <h2>8. 31(월) 14:00부터 보도 가능</h2>	
---	--	--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금융개혁 현장점검단 금융위원회 금융현장지원단,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		
책 임 자	김성조 팀 장	담 당 자	박경덕 사무관 (2156-8004)
	김정명 팀 장		김종식 사무관 (2156-8005)
	배지숙 과 장		성미라 사무관 (2156-9623)
	홍길 팀 장		장항필 선 임 (3145-8856)
	홍영기 부국장		최은희 선 임 (3145-8635)
배 포 일	'15. 8. 31 (월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7매

### 제 목 : 임종룡 금융위원장, 「현장점검 간담회」 개최

- 현장점검의 대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이용자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.
- 금융회사가 위원장원장에게 직보로 건의할 수 있는 블루시트를 발급하겠습니다.

#### 1. 간담회 개요

-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'15.8.31(월) 현장점검을 직접 받은 금융회사 실무자, 금융협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,
- '15.3.26일 출범하여 금융현장과의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해온 「금융개혁 현장점검반」 활동을 재점검하고,
- 참석자들로부터 그간 현장점검에 대한 평가, 대상·방식의 다양화 등 의견을 청취하고 새로운 현장점검반의 운영방향을 제시

■ 일시/장소 : 2015.8.31(월) 14:00~15:30 / 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 클럽

#### ■ 주요 참석자

- 안동현 금융개혁 자문단장 (現,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)
- 금융회사(7명) : 현장점검 수검 금융회사 실무자
- 금융협회(7명) : 은행연, 금투협, 손보·생보협, 여전협, 저축은행중앙회, 신탁중앙회

## 2. 현장점검 성과 및 평가

- (성과) '15.4.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16주차(7월말)까지 197개 금융회사를 방문, 약 2,40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음

- 1~12주차까지 접수된 건의 중 현장 답변, 법령해석 등을 제외한 회신 대상 1,436건(수용률 46%) 전부 회신 완료

\* 수용 : 662건, 불수용 : 394건, 추가검토 : 380건

- (평가) ① 현장(실무자)과 직접 소통하고 ② 신(속)·적(극)·성(실) 원칙에 따른 진정성 있는 회신으로 금융당국의 신뢰회복에 기여

※ '금융개혁 100일 서베이' 결과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여러 금융개혁 활동 중 현장점검반이 특히 좋은 평가('낮은 자세로 의견수렴을 잘 하고 있다'는 답변비율이 82.3%, 금융업 실무자는 96.5%)를 받음

- 특히, 건의과제 발굴(현장점검반)과 답변 작성(담당 실무자)이 분업구조로 운영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

- 그동안 현장점검을 받은 금융회사 실무자 등도 그간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

현 "(A금융회사 실무자) 현장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잘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. 현장점검이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잘 느껴졌습니다."

"(B금융회사 실무자) 그간 금융사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느껴졌던 감독기관에서 열린 마음으로 현장의견을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, 금융위·금감원 협업을 통해 one-stop으로 신속히 회신해준 점이 특히 만족스러웠습니다."

### 3. 현장점검반 운영 개선방향

#### 1 현장점검 대상 확대 및 방식의 다양화

- ① **대상을 확대하여** 중소기업, 금융소비자 등에 대한 **의견수렴 강화**
- ② **부처협업과제, 유관기관 협의과제 발굴**을 통한 현장점검 **사각지대 해소**

#### □ 현장점검 대상 확대

현 “(C금융회사 실무자)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, 투자자, 중소기업 등 금융이용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.”

\* 지역별(지점 영업직원, 지역본부 등), 업권별(자본시장의 경우 애널리스트, 기관투자자, 시행사, 회계법인 등)로도 폭넓은 의견수렴 필요

“(D금융회사 실무자) 한국거래소 등 금융유관기관도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제도개선 과제를 활발히 발굴할 수 있습니다.”

- 대국민 체감도 제고 및 금융회사 보신주의 타파를 위해 **현장점검 대상**을 「금융회사 → 금융이용자」로도 확대

- **금융이용자\***를 대상으로 **의견을 수렴**하고, 건의사항이 금융회사의 자율영역인 경우 **금융회사(또는 협회)와 공동으로 대응방안 마련**

\* 예시 : 금융소비자, 중소벤처기업, 핀테크 사업자, VAN사 및 가맹점

- ➡ **금융이용자와 금융회사 간 의사소통 통로**를 마련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성·자율성 도모

- 금융회사, 금융이용자와 현장점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**금융 유관기관**에 대해서도 **현장점검**을 실시하고, 필요시 현장점검반, 유관기관, 금융회사·금융이용자 간 **3자 간담회\*** 실시

\* 예시 : 신보, 기보와 보증이용기업 / 거래소와 금융회사 등

- ➡ 금융애로 해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**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영역까지 현장점검** 실시

#### □ 현장점검 방식 다양화

현 “(E금융회사 실무자) 개별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의 각 업무별·주제별로 공통의 쟁점현안에 대해 관계자간 공동회의 형태로 해결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현장점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”

“(F금융회사 실무자) 금융위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현장의 소리가 직접 전해질 수 있는 Direct Channel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”

- 현장점검 방식을 「**개별 금융회사 방문 → 부문별\* 심층점검**」방식도 병행

\* (예시) 은행 ① 여수신 ② 외국환 ③ 신탁 ④ 전자금융 ⑤ 리스크 관리 등

- 협회를 중심으로 일정기간(분기별 등) 금융회사들이 희망하고 주요 쟁점이 있는 부문을 선정한 후 **건의사항을 수렴\***

\* (종전) 회사 방문시 수동적인 건의 → (개선) 금융회사의 능동적 건의 프로세스 마련

- 필요시 금융회사 실무자, 협회 외에도 해당 부문 전문가 등과 **심도 있는 논의**를 하는 방안도 검토

- 또한 건의과제별로 중요도를 제시토록 하고 중요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**중점 관리**

- 특히,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위원장·원장에게 직보를 요청할 수 있는 **건의사항 제출양식(가칭 블루시트)**를 금융회사에게 제공

#### □ 부처협업과제 발굴·처리 강화

현 “(G금융회사 실무자) 금융회사는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와 중첩적으로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현장과 금융당국 뿐 아니라 관련부처와의 Bridge의 역할도 현장점검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”

- 현장점검을 통해 타부처 소관 규제도 의견을 수렴하고, **주요부처협업과제**는 관계부처에게 **의견을 전달**하고 **개선방안을 적극 협의**

- 추후 정부내 금융개혁추진기구인 「**금융개혁추진단**」에 **상정 추진**

## 2

## 현장점검 관리강화

- ① 현장점검 전파기능 강화를 통한 체감도 제고 및 금융혁신 유도
- ② 불수용·추가검토 과제 재검토를 통한 지속적 사후서비스 제공

## □ 현장점검 전파기능 강화

현 “(H금융회사 실무자)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을 상세히 제공한다면 보다 편리하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”

- 앞으로 금융규제민원포털을 정비하여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제공도 세분화\* 추진 (‘16년)

\* (예시) 접수 → 담당자 지정 → 검토중 → 결재중 → 회신완료 → 추후 법령개정

- 중장기적으로 관련 법령, 판례, 기존 제재결정례, 유권해석, 회신내용 등을 연관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
※ 금융회사 법무팀은 전파기능 강화가 체감도 제고의 최대관건임을 지적

- 정기적(반기)으로 회신내용을 정리하여 책자로 배포하고 협회 중심으로 회신내용을 공유하고 활용도를 높여 금융혁신 유도

## □ 현장점검 과제의 심층 재논의

현 “(I금융회사 실무자) 불수용·추가검토 건도 법령개정 및 금융상황 변화로 재고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.”

“(J금융회사 실무자)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충분히 남득이 가도록 설명하고,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.”

- 불수용·추가검토 과제라도 업권별로 지속·반복되는 건의사항은 금융 환경의 변화 및 건의취지 등을 감안하여 심층 재논의 방안 추진

\* 금융회사, 협회, 전문가 등과 회신 취지의 설명 및 제3의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형식의 현장점검회의 개최 등

## 3

## 현장점검 상시화·체계화 방안

- ① 연간 방문계획 사전공지로 금융회사의 준비성·수용성 제고
- ② 금융규제민원포털 활성화를 통한 건의과제 제출 상시화

## □ 연간 방문계획 사전공지

현 “(K금융회사 실무자) 현재는 방문 2주전에 통지를 받고서야 건의사항을 검토할 수 있어서 시한이 촉박합니다. 사전에 반기·연간 등 일정을 제시해주면 보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 내실있는 의견 제시가 가능할 것입니다.”

- 연간 금융회사별 현장점검 방문계획을 수립\*하고 이를 사전공지

\* (종전) 임의적 점검방식 → (개선) 현장점검의 상시화·정례화

## □ 건의과제 제출 상시화

현 “(L금융회사 실무자) 현재는 현장방문 시기에만 건의과제 제출이 가능하여 연중 중요쟁점이 발생한 때에 의견을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.”

- 활발하게 민원을 건의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민원포털시스템을 정비(‘16년)

\* 현재도 규제신문고를 통해 상시건의는 가능

## 4

##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 개선

현 “(M금융회사 현장점검 실무자)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개별 금융회사들은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사실상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”

“(N금융회사 실무자)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내용을 공개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하지 않은 다 금융회사에서 해당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.”

- 금융당국·협회 공동으로 비조치의견서 활용을 위한 설명자료 마련 및 개별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및 실무자 대상 설명회 개최 추진

○ 비조치의견서 등의 **해외 이용사례를 파악**하고 한국적인 금융환경 하에서의 비조치의견서 등의 **활성화 방안을 마련**

- 이를 위해 전문가, 금융협회, 금융위, 금감원 등이 참석하는 **간담회를 9월중 개최 (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)**

○ 비조치의견 등의 회신내용이 **공개가능한** 경우 해당 금융회사뿐 아니라 **업권내 모든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개선(4분기)**

\* 모든 금융회사 관계자(준법감시인, 경영자, 실무자 등)에게 **이메일로 송부** 하고, 법령개정 등 주요 금융규제개혁 관련 뉴스도 정기제공

※ 금일 `10~`15년 법령해석 사례 1,423건을 금융규제민원포털에 **일괄 등재**하여 금융회사, 금융이용자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음

#### 4. 향후 계획

□ 연말까지 현장점검 대상을 미리 확정하여 통보하고, **금융회사 전반에 (약 400개사) 대한 개별 금융회사 방문 방식의 현장점검을 실시**

○ 아울러 하반기 중 현장점검 대상·방식 다양화를 해나갈 예정\*

\* 9월초 금융개혁회의에 「현장점검의 다양화·상시화 방안」을 상정·보고

□ 금년까지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**내년부터는** 다양한 금융 현장의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「**상시 현장점검체계**」를 마련해 나갈 계획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

넓게 들겠습니다  
바르게 알리겠습니다